

둘째, 제도가 불투명하고 객관성을 갖지 못할 경우, 제도를 획일적, 경직적으로 운용하거나 사업특성 및 여건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패할 수 있다.

셋째, 재원조달에 필요한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거나 금융기법이 낙후될 경우,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할 경우 실패할 수 있다.

넷째, 민간투자자의 투자수익을 적절히 보장해 줄 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정지원 절차가 복잡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지진·태풍·전쟁 등 불가항력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실패할 수 있다.

4) 민자사업의 성공조건

민자사업의 성공은 앞에 열거한 실패요인들을 여하히 잘 극복하고 조정하느냐에 달려있다. 타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자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 Win-Win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 역시 공공재인 인프라 시설의 특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모든 투자재원을 민간자

본으로 조달한다 하더라도 사적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과 인프라시설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투자여건 자체가 다르다. 민자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민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조급증 없이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민자사업은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부사업과 그 구조부터가 다르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나 민간 모두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한다. 정부사업은 예산만 편성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단기간내에 진행할 수 있다. 정부사업은 실패하더라도 그 손실을 국민 모두가 책임진다. 따라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위험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설령 계획이나 판단이 잘못되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본질에 있어 일반 투자사업과 다를 바 없다. 이윤이 남아야 하고, 작게는 수 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 조원의 돈을 투자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조그마한 실수나 위험이 발